



1020 여성의 자살률이 심상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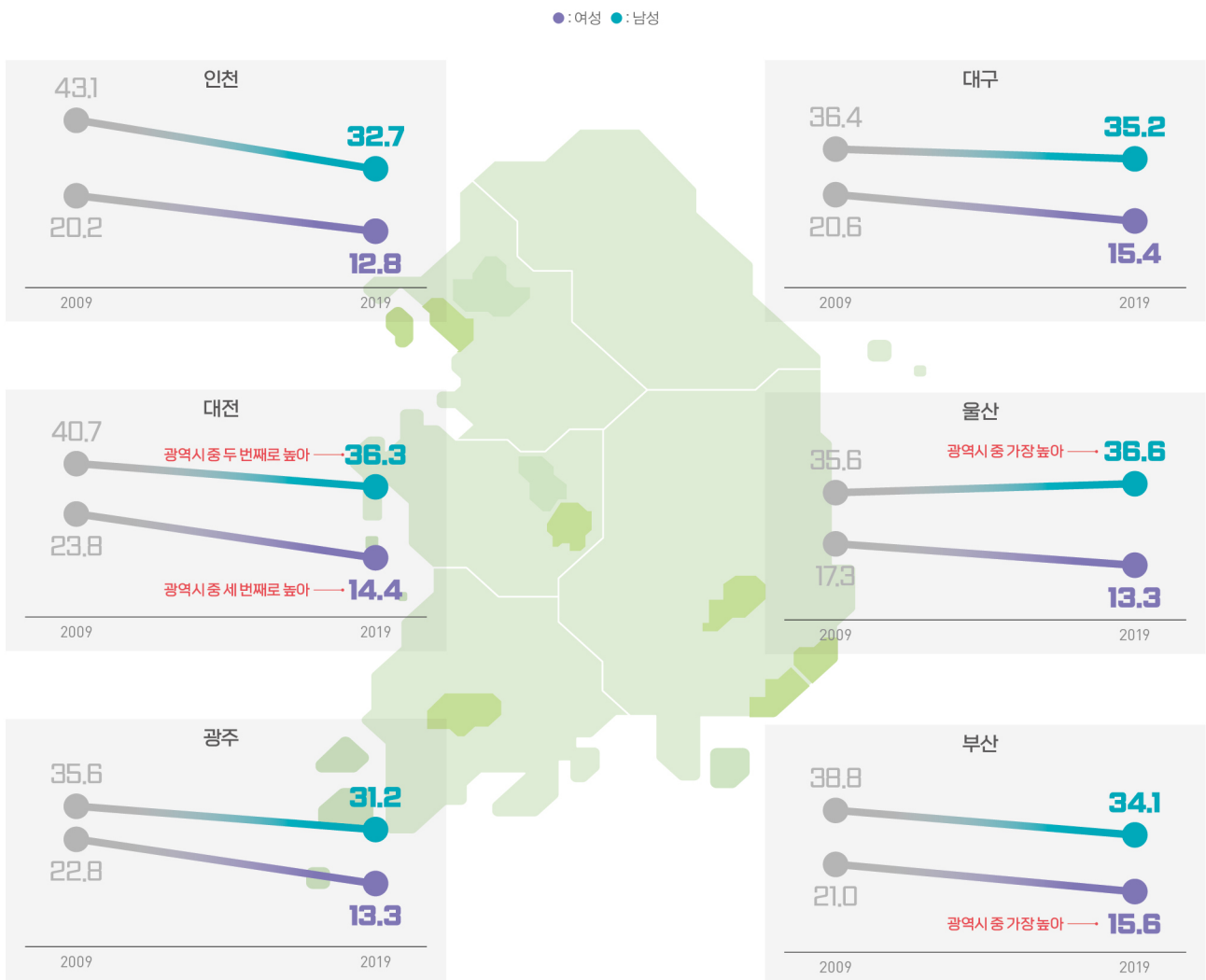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6.9명으로 OECD 평균 11.2명의 두 배가 넘고, 10대와 20대, 30대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는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전의 성별, 연령별 자살률은 최근 10년간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

광역시 중 대전 여성 세 번째, 남성 두 번째로 자살률 높아

2019년 6대 광역시 중 여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15.6명)이며, 그 다음으로 대구(15.4명)가 높다. 2009년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자살률을 보였던 대전은 2019년 14.4명으로 세 번째로 낮아졌다. 남성의 자살률은 울산이 3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대전(36.3명)이 두 번째로 높다. 6대 광역시 모두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다. 특이한 점은 2009년과 비교해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 울산의 남성 자살률은 2009년(35.6명)에 비해 1.0명 증가했다.

6대 광역시 성별 연령표준화 자살률¹⁾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1) 지역별 비교 시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로 비교했으며,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함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대전 20대 여성 자살률, 전년 대비 7.0명 증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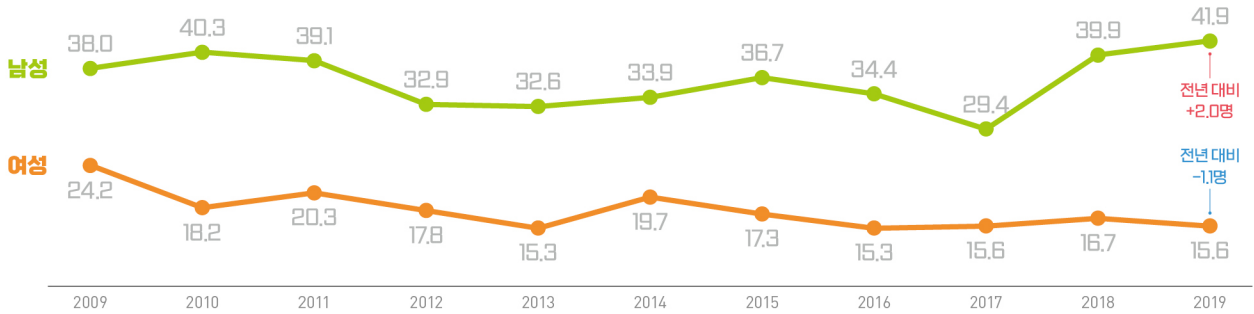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대전시의 성별, 연령대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봤다.

2) 집단 간 비교가 아닐 경우 해당 연도의 연령별 연앙인구를 사용하여 산출함. 따라서 앞서 제시한 연령표준화 자살률과 상이함
 - 자살률: (성별·연령별 자살자 수/성별·연령별 해당 연도 연앙인구)×100,000
 * 연령미상 제외함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대전 성별 자살률²⁾

최근 10년간 여성의 자살률은 2009년 24.2명에서 2013년 15.3명까지 감소했으나 2014년 다시 증가했다. 이후 다시 감소 양상을 보이면서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1명 감소해 15.6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자살률은 2009년 38.0명에서 2017년 29.4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9년 전년 대비 2.0명 증가한 41.9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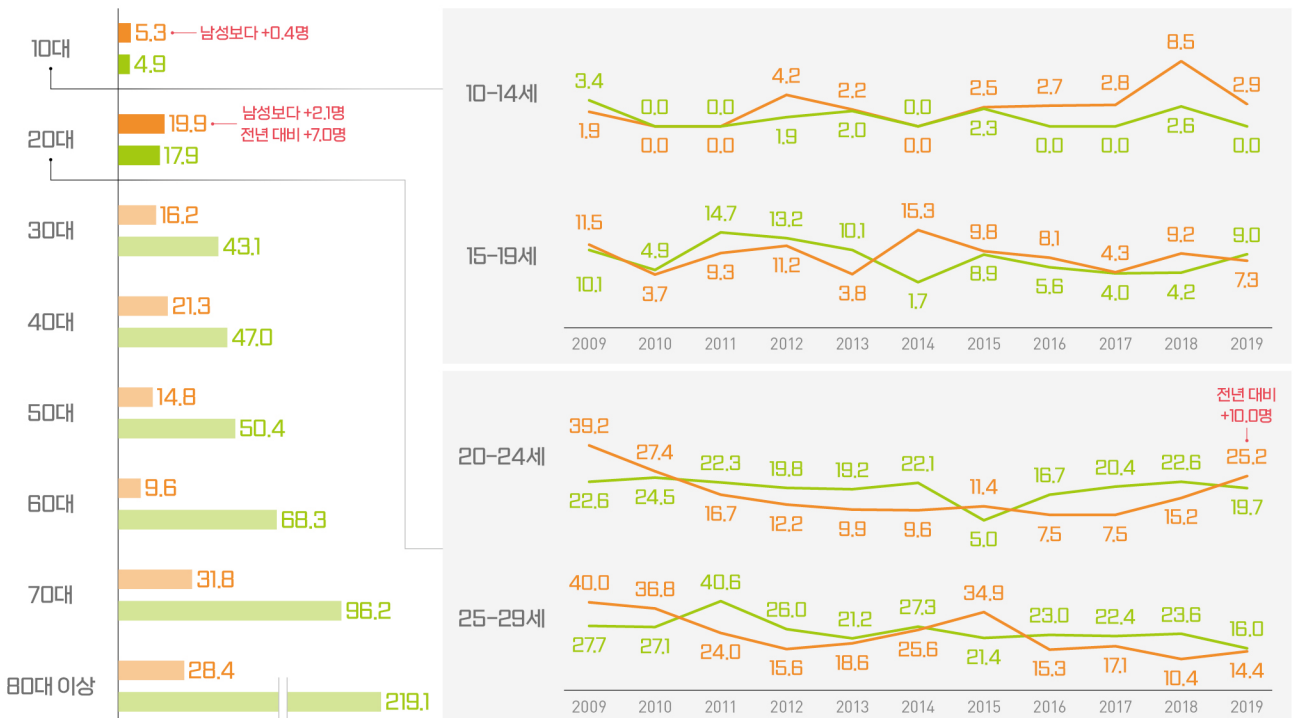


대전 연령대별 자살률

남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하고, 특히 70대 이후 급증한다. 여성은 70대의 자살률이 31.8명으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28.4명), 40대(21.3명), 20대(19.9명), 30대(16.2명), 50대(14.8명), 60대(9.6명) 10대(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10년간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항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10대와 20대의 경우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률(19.9명)은 남성(17.9명)과 비교해 2.1명 높고, 2018년 대비 7.0명 증가했다. 5세별 추이를 보면, 10-14세는 2009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계속해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 20-24세는 여성의 자살률은 감소 양상을 보이다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면서 2019년 전년 대비 10.0명 증가했다.

■: 여성 ■: 남성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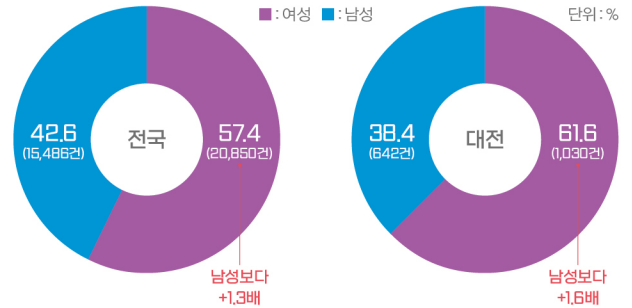
대전 자해·자살 시도 건수, 여성이 남성보다 약 1.6배 많아

성별, 세대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162개 응급실 내원 자료에 주목했다.

*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은 전국의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해 접수한 환자의 진료 정보임.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162개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실시간으로 전송된 정보를 활용함
 * 연령미상 제외함
 * 출처: 중앙응급의료센터, 『2019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2019년 전국 및 대전 성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

2019년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남성 15,486건, 여성 20,850건으로 여성(42.6%)이 남성(57.4%)보다 1.3배 많다. 대전의 경우 성별 차이는 더 컸다. 여성 1,030건, 남성 642건으로 여성(61.6%)이 남성(38.4%)과 비교해 약 1.6배 더 많다.



2019년 대전 성별·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현황

2019년 대전의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를 살펴보면, 20대 남녀(여성 330건, 남성 158건)가 가장 많다. 뒤 이어 여성은 10대가 174건(16.9%), 남성은 40대가 111건(17.3%)으로 많다. 1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가 많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특히 20대와 10대에서 남녀 차이가 컸다. 남성과 비교해 20대 여성은 172건이, 10대 여성은 112건이 많다.

